

‘새로운 시작’... 중1·고1 어떻게 공부할까



선행학습 보다 기초학습 ‘탄탄하게’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중학교 1학년이나 고교 1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은 중·고교 진학과 함께 학습여건의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친구들은 물론, 학교 현장과 교사들이 확 바뀐다. 더구나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입이나 고교 입시 등 교육정책의 변화도 예상돼 학생들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과전문 입시학원 ‘김스쿨’ 학운관 김신희 원장의 도움으로 중1과 고1 학생들의 새로운 환경 적응법을 물어본다. 김 원장은 “중학교와 고교 각 3년동안 진행하게 될 학습의 가장 중요한 초석을 튼튼하게 세우는 시기여서 선행 학습보다 기초를 다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학교 1학년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 등에 따르면 2013년 대입을 치르게 될 중2부터 영어과목 공부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영어능력시험의 실시를 통해 영어 능력을 평가하

중1 국·영·수·과학 학력평가 사전 대비를 고1 논술시험 유무떠나 독서 습관 길러야

고, 학교수업에서도 실용 영어 영역이 더욱 강화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때문에 앞으로는 영어 말하기 능력과 쓰기 능력을 더욱 강화한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

영어와 친숙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영어일기를 쓰는 것이다. 일기 쓰기를 통해 스스로 영어로 작문하는 능력을 기르고, 영어로 대화하는 훈련 등을 통하여 영어 자체가 완전히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생활화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중1 학생들은 대학 입학시에 영어 논술 시험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자.

또 중1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에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형 사립고는 자체 선별고사가 금지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므로, 내신 성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지나친 선행학습

위주의 공부보다는 탄탄하게 본 실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국어·영어·수학·과학을 중심으로 한 전국 학력평가(전국연합 진단평가, 교과학습 진단평가, 학업성취도 평가)가 대대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시험결과는 전국 성적이 표기될 예정이므로, 이 시험 결과를 잘 활용하여 대학 입시를 장기적으로 준비해가는 것이 좋다. 이들 시험에서는 크게 스트레스를 받기 보다 자신의 학업 성취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자세로 활용해야 한다.

▲고등학교 1학년생
고1 학생들은 현행 입시제도에 거의 흡사한 대학 입학 절차를 밟게 되지만 기존 몇 가지 달라지므로 유념해야 한다. 수능 등급제의 폐지로 인해 학생의 수능성적이 정확하게 공개돼 수능능력시험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결국 대학의 입장에서 더 정확한 학생 평가 기준을 갖게

되기 때문에 논술 시험의 비중이 지금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시모집에서는 논술이 여전히 중요한 변수다.

해당 지원 학과별로 과목별 성적 반영 비율의 차이가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고교 1학년 때부터 본인이 어떤 학교의 어떤 학과를 진학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고, 과목간 학습 비중을 적절히 안배해야 한다.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공부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가 클 것이다. 시험결과는 전국 성적이다. 따라서 고1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잘 활용하여 대학 입시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고1 시기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 중 하나가 ‘독서’다. 논술 시험의 유무를 떠나 독서는 수능시험 언어영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중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독서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채 고등학교로 진학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장 하루 30분씩이라도 책을 읽는 생활습관을 길러야 한다.

(도움말=김스쿨 학운관 김신희 원장)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인성교육 통해 학생들 자신감 키울 것”

평교사서 교장으로 광주 치평중 정병표 교장

“해직했던 기간의 경험이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난 26일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교장·교감 인사발령에서 치평중 교장으로 임명된 현 품암고 국어 교사 정병표(57)씨는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이다. 공모제를 통해 평교사에서 교장으로 직행한 광주의 첫 사례다.

정 교장은 “교장 공모제를 실시하는 것은 개방적 리더십과 혁신에의 요구라고 본다”며 “교장이 될 수 있게 해준 학교 운영위원들의 뜻에 맞게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장은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지난 1989년 7월 해직돼 1994년 3월 복직했다. 정 교장은 해직기간 동안 전교조 지부 활동, 재야

운동 등을 하면서 학교 밖에서 학교를 보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한다.

“학교에만 있을 경우 학교운영에 근시안적 접근을 하게 된다. 적어도 그런 점은 제가 나올 수 있겠소. 새로 부임하는 학교의 상황에 맞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천할 예정입니다.”

우선 실천해야 할 것이 교내 각종 회의 기구의 정상화다. 학생회를 비롯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의, 교사회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임들이 토론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게 한다는 것이다.

정 교장은 “치평중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며 “학생들 중 의기소침해 있고, 자신감이 결여된 경우가 많은데



인성교육 등을 통해 자신감을 높여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만 인성교육과 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정 교장의 지론이다.

3월1일자로 정식 부임하는 정 교장은 겨울방학이 끝난 뒤 개학하는 3월3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정 교장은 “4년의 임기 동안 민주적이고도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학교를 바꿔놓을 생각”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세운 계획을 차렷으로 실천하고 교장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 아름다운 정년퇴임을 하고 싶다”고 소망을 얘기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캠퍼스 소식

광주대, 글로벌 인재양성 박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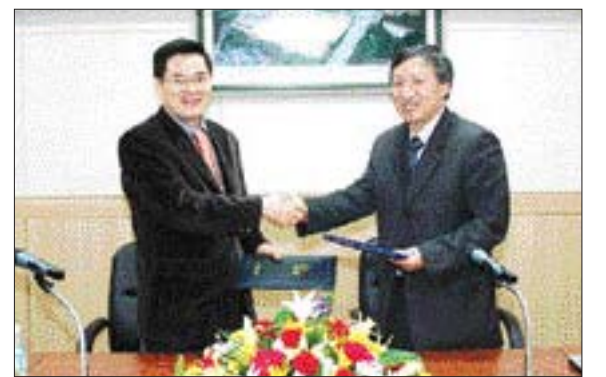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새 학기를 맞아 학술 및 학생 상호교류 협정을 맺은 해외 대학에 교환학생을 잇따라 파견하는 등 글로벌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대는 오는 3월 중국 치치하얼대학에 25명의 교환학생을 파견한다. (사진) 이들 교환학생은 지난 2005년 체결된 양 대학의 교류협정에 따라 학비와 기숙사비를 전액 면제받는다.

유학 중 중국 교육부 산하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가 주관하는 외국인 대상 중국어 시험인 한어수평고시(HSK) 7급 취득하면 졸업 시 광주대와 치치하얼대학 두 곳에서 졸업증서와 학위를 받는다.

광주대는 또 중국 청도반해대학에 11명의 학생을 파견한다. 이들 학생 역시 양 대학의 교류협정에 따라 학비와 기숙사비를 전액 면제받으며, 유학 중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는다. 광주대는 이와 일본의 에히메대학에도 교환학생 1명 파견한다.

서강정보대, 산학협력 업무 협약



서강정보대학(학장 김경수)은 27일 오전 대학 회의실에서 한국산업단지 광주단지 혁신클러스터추진단(단장 김영집)과 ‘산학협력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산학협력 활성화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동신대, 교육중심대학 달성 연찬회

동신대학교(총장 정기연)는 지난 25~26일 이틀 동안 신안군 증도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교육중심대학 비전 달성을 위한 전체 보직교수 연찬회를 개최했다.

김필식 이사장과 정기연 총장 등 보직교수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연찬회에서 참석자들은 오는 4월 ‘동신비전 2020’ 선포 1주년을 앞두고 지난 1주년을 되돌아보며 점검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사이버 가정학습 자료 제공

새학기부터 전남도내 학생들에게 학습 개개인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별 학습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도교육정보원 인터넷 사이트(cyber.jneb.net)를 통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 능력에 따른 수준별 사이버 가정학습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가정학습’은 학원에 가지 않고도 알찬 학습내용과 꼼꼼한 학습관리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줌으로써 학습기회 제공과 성적 향상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보충학습 콘텐츠와 중학생을 위한 심화학습 콘텐츠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조선대, 헌책 단 돈 500원에 팝니다

“헌책이 단 돈 500원입니다.”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김선아)이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교수)는 3월5~6일 이틀 동안 중앙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헌책 복세일 행사’를 갖는다.

조선대 중앙도서관이 소장 중인 도서 중 두 권 이상인 책 또는 낡은 도서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에서, 원하는 시민들은 국내·외 도서, 잡지 등 책 1만1천여권과 비디오 테이프 900여개를 균일가(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SONY
모든 것

인사발령
광주광역시 교육청 인사발령

글로벌 인재 양성
광주대학교 글로벌 인재 양성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흥건 부동산 리서치
흥건 부동산 리서치

이비정리
이비정리 서비스

유아영어 공기정화
유아영어 공기정화

인사발령
인사발령 정보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흥건 부동산 리서치
흥건 부동산 리서치

이비정리
이비정리 서비스

유아영어 공기정화
유아영어 공기정화

인사발령
인사발령 정보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흥건 부동산 리서치
흥건 부동산 리서치